

학령기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with School Aged Children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보육복지학과
전임강사 이 사 라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박 지 속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Educare, Sejong Cyber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Sarah Le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Student : Ji-sook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culture-specific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with school aged children, and to investigate how this program affected their overall parenting behavior. We ran an 8-week session program for parents with first, second and third elementary school graders and conducted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in order to examine the program's effects. In the questionnaire, we asked participants about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knowled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gram participants tended to have higher scores on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knowledge after the eight sessions. They also demonstrated lower scores on parenting stress. Study results imply that our parenting program is practical in an elementary school setting and can also apply to higher graders.

주제어(Key Words) :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학령기(school age),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양육지식(parenting knowledge)

I. 서론

부모교육은 부모 또는 주양육자에게 자녀를 위한 특정한 지식과 양육기술을 제공하는 과정으로(Mahoney, *et al.*, 1999),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향상을 이끌어 내고 양육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기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은 부모가 역할 수행을 하는데 변화를 주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적 활동이며(Brim, 1965),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목적적인 학습활동(Croake & Glover, 1977)이고,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돌이켜 검토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포함한다(이재연, 김경희, 1992).

현재 시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에 근거한 STEP(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이나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을 기초로 한 Gordon의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Adler와 Dreikurs, Rogers의 AP(Active Parenting) 등이 있다(박성연 외, 2006). 이 외에도 현재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전문 교육기관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시행되기 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민보경, 김성원, 2008).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전문가들에 의한 부모교육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하고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되며(우영효, 2001), 부모교육의 대상에 따라 제시되는 내용과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이 달라져야 하고(정영숙, 1998), 각 연령별 대 자녀를 둔 부모들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실시 시간 및 회기 수를 선택해야 하며(김정원, 이기숙, 1999), 부모교육 내용 선정 시 연령별 대 부모의 요구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원영, 배소연, 1999)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 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는 자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교육자이며 양육자이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수정의 방법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최미경 외, 2008),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관련이 높게 나타나고(Baumrind, 1971), 부모교육프로그램

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강명희, 2002; 김성자, 2002; 박현미, 2003) 노력과 훈련을 통해 좋은 부모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부모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인 양육효능감이 부모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많이 포함되고 있다.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과 부모가 바람직하게 자녀를 양육할 경우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Teti & Gelfand, 1991). 선행연구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Dempsey & Dunst, 2004; Desjardin, 200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더불어 양육지식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식 및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자녀양육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evenson-Hinde, 1998; Trommsdorff & Kornadt, 2003). 이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발달단계에 적합한 양육지식을 제공한다면 부모자녀관계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암시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짜증이나 성가심으로 지각되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Kotchick, *et al.*, 1997; Scheel & Rieckmann, 1988),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Abidin, 1990a; Whiple & Webster-Stratton, 1991).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든다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근거할 때, 부모자녀관계 향상이 주된 목적이 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지식을 포함시킨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적절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학령기 아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로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활동중심은 가정뿐 만 아니라 학교에서 사귀 친구들을 통해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획득하게 된다(도현심, 이희선, 김상희, 최미경, 이사라, 2005). 또한 학령기 아동은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아개념이 점차 복잡한 개념으로 발달하게 되고 이시기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학습의 토대, 사회화의 기반 등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들

습득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는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자녀의 심리적 성장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적응을 위한 준비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한국사회는 빠른 인터넷 보급과 문화전달의 속도로 인해 과거에 비해 초등학생들의 조숙한 성장을 보게 된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은 아이들이 자아를 인식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초기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Tapscott, 1998). 이러한 인터넷 문화는 초등학생들이 빠르게 사춘기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아동의 사회생활 범위가 확대되고 부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임과 동시에 자녀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녀의 발달을 지도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부모의 훈육방법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부모의 양육이 신체적인 양육에서 점차 심리적인 양육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도현심 외, 2005). 따라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의 전달과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이 시기 부모의 역할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TV나 대중매체,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대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정옥, 구향숙, 2007). 그러나 자녀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은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번안하여 모든 연령대의 자녀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김진영, 김정원, 전선옥, 2006), 특히, 학령기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유아기와는 다른 학령기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역할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고 여러 발달단계가운데 학령기 아동의 부모자녀관계에 적절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한 기초연구가 되고자 한다. 또한, 본 학령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통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초등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

육 프로그램 실시 후 그 효과가 어떠한가?

- 1-1. 부모의 양육행동에서의 변화는 어떠한가?
- 1-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서의 변화는 어떠한가?
- 1-3. 부모의 양육효능감에서의 변화는 어떠한가?
- 1-4. 부모의 양육지식에서의 변화는 어떠한가?

II.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연령대가 혼재되어 있는 대중을 위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발달단계별로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국내외 연구논문과 저서들(박성연 외, 2006; 예서현, 2004; 이명숙, 2003; Luster & Kein, 1987; Mahoney, et al., 1999; Mahoney & Bella, 1998)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필요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여 현 한국사회에서 학령기 부모자녀관계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먼저 학령기 자녀를 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 200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요구도 조사를 2007년 2월 15일부터 3월10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지역은 서울시(서초구, 영등포구, 종로구)와 수도권(분당, 수원, 인천)과 대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어머니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6명의 보조연구원이 어머니와 직접 1:1 면접하여 현장에서 실시하여 210부의 질문지가 모두 배부되고, 모두 회수되어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누락된 답이 많은 경우, 동일한 답을 연속해서 쓴 경우 등과 같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9부를 제외하고 총 201부를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요구도 조사 분석에 사용하였다. 요구도 분석 결과, 학령기 아동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어머니들은 진로 및 적성, 학교 생활적응, 학령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학령기 아동의 발달, 학령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의 순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진로 및 적성 영역에서는 자녀의 적성파악, 성격 유형별 학습지도, 진로지도 방법, 학업 성취력 향상 방안의 순으로 요구가 있었고, 학교생활적응 영역에서는 따돌림에 대한 대처와 친구관계지도, 학습습관지도, 취약과목에 대한 대처의 순서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

전관리영역에서는 건강관리, 안전지도, 정신건강 등의 순서로 요구가 나타났으며, 학령기 아동의 발달 영역에서는 사회성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등의 순으로 요구가 있었다. 학령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 영역에서는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법, 자녀에게 책임감을 길러주는 방법,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 방법의 순서로 요구가 있었으며,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의 영역에서는 나 자신의 분노 조절 능력, 내가 아이를 기르는 양육 방식 유형 등의 순서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와 분석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요구도 내용에 근거하여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아동 관련 전문가 2인과 대학원생 5명이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지침서(강사용), 부모용 워크북, 활동지라는 세가지 요소가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었고 각 회기별 구성내용 및 전개방식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본 프로그램은 학령기 아동의 발달연령에 적합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이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의 향상을 이루고 바람직한 부모상과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도록 돕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한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특징을 알고, 이 시기의 필요한 부모의 역할 및 부모-자녀관계를 인식한다. 셋째,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령기 자녀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앞으로 인해 학령기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넷째, 감정 조절하는 법을 인식하여 민주적인 갈등해결 방법을 습득한다. 다섯째, 학령기 아동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생활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인식한다. 여섯째,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것과 또래 괴롭힘(왕따)으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한다. 일곱째, 학령기 아동의 인지발달 특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형성과 학습 지도를 위한 부모역할을 이해한다.

3. 프로그램의 운영

1) 참가대상 및 집단 규모와 강사

본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의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다. 프로그램 참가 어머니들의 수는 15명의 소집단으로 운영되었고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희망자에 한해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을 맡은 강사는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아동학 관련 과목과 부모교육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였으며, 매 회기 진행시 아동학 석사과정 대학원생들 2명이 상이 함께 참여하였다.

2) 실시기간

본 프로그램은 1주일에 1회기씩 총 8주 동안 8회기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각 회기의 운영시간은 120분으로 진행되었다.

3)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본 프로그램은 1회기에서 8회기까지로 구성하였다. 1회기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 형성 및 프로그램 소개 및 진행방법에 대해 중점을 두었고, 2회기부터 7회기까지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단계 특성에 대한 지식과 학령기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해야 하는 부모의 역할 및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8회기에서는 앞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현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 하였다.

각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1회기에서는 라포형성에 중점을 두고 강사, 프로그램 소개 및 참가자들 간의 소개가 있고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강의를 하게 된다. 그 후 실습 및 토론시간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활동을 한다. 2회기에서는 요구도 조사 결과 학령기 아동의 발달영역에서 사회성 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순으로 요구가 나타났으므로, 학령기 아동의 발달특성에서 사회성, 인지, 언어발달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과 이 시기에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실습 및 문제해결 시간에서는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각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3회기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영역에서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던 것을 근거로, 부모-자녀의 상호존중적 대화를 주제로 학령기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강의와 실제적인 기술을 알려주고 배운 내용을 실제 적용해 보는 실습시간을 갖는다. 4회기에서는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의 영역에서 분노조절능력과 양육방식유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므로, 민주적인 갈등해결을 위해 감정조절법과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해에 관한 강의를 진

행한 후 실습 및 문제해결시간에 체벌에 대한 토의를 하고 문제해결시간을 통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실습한다. 5회기에서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기본생활지도에 대해 다루게 되는데, 학령기 아동의 발달특성상 이 시기 기본생활지도가 중요함을 강의하고 지도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가족회의를 통한 문제해결법에 대한 실습을 한다. 6회기에서는 학교생활적용 영역에서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교육의 요구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또래관계지도를 주제로 바람직한 학령기의 학교생활 지도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학령기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각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한 후 초등학생의 또래관계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그에 대한 토론 및 실제 가정과 학교에서의 상황에 대한 인식 및 가정에서의 지도법에 대해 실습한다. 7회기에서는 어

머니들의 요구가 가장 높았던 자녀의 진로 및 적성 부분의 요구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령기 아동의 인지발달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을 형성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부모역할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부모의 성격검사(MBIT)와 자녀의 성격검사(MMTIC)를 통해 상호간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방법을 찾아내도록 한다. 마지막 8회기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 복습하는 형식으로 학령기 아동의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이루어지고 부부 공동양육에 대한 개념과 의미에 대해 강조하면서 아버지 역할을 부각시켜주면서 실습시간에는 8회기를 경험하면서 변화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자녀의 장점 10가지 쓰기, 자녀에게 편지쓰기, 서약서 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마무리한다.

〈표 1〉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내용

회기	교육목표	내용	전개
1 학령기 아동과 부모	1. 첫 모임으로서 부모들 간의 유대감 형성과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2.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내용 구성,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해한다. 3. “나는 어떤 부모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봄으로써 부모로서의 자신을 돌아본다. 4. 인격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 5. 부모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	부모로서의 나 학령기아동에 대한이해	도입 강의및토론 실습및토론 복습및과제
2 학령기 발달 특성에 자녀 양육	1. 학령기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특징을 이해하고, 이 시기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 및 부모-자녀관계를 알아본다. 2. “나는 우리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봄으로써 자신의 양육유형을 알아보고, 맞는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알아본다.	학령기아동의발달특성 바람직한부모역할 부모의양육태도고찰	도입 강의및토론 실습 복습및과제
3 부모자녀의 상호 존중적 대화	1.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령기 자녀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알아본다. 2. 학령기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자녀를 칭찬하는 방법 등을 습득하고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입 강의및토론 실습 복습및과제
4 민주적인 갈등해결 방법	1. 감정조절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부모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알고 조절하여 명료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2. 아동의 눈에 보이는 잘못된 행동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아동의 느낌을 살펴본다. 3. 아동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감정조절방법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이해 대화를통한갈등해결	도입 강의및토론 실습 복습및과제
5 다양한 양육 실제 I: 기본 생활 지도	1. 학령기 아동의 특성에 따른 기본생활 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이해한다. 2. 선택권, 선택적 무시, 권리와 의무, 가족회의를 통한 생활 지도의 개념이해와 3. 이러한 양육기술을 실제 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문제해결시간을 갖는다.	학령기아동의 기본생활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할	도입 강의및토론 실습 복습및과제
6 다양한 양육실제 II: 또래 관계지도	1. 학교생활에 경험할 수 있는 교사와의 관계, 학교의 규칙에 적응하기, 리더십 및 발표력 향상시기에 대해 알아본다. 2.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중요성, 또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래 괴롭힘(양파)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학령기아동의 학교생활지도 및 또래관계지도	도입 강의및토론 실습 복습및과제
7 다양한 양육실제 III: 학습 지도	1. 학령기 아동의 인지발달 특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형성과 학습 지도를 위한 부모역할을 이해한다. 2. 각각의 부모가 실시했던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8가지 부모의 성격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성격 유형별 학습지도와 학습기관 선택에 대한 주의를 알아본다. 3. 학습지도에 대해 실습을 하고, 문제해결시간을 갖는다.	학령기아동의 인지발달특성에따른 자기주도적학습방법 MBTI, MMTIC 검사 결과분석	도입 강의및토론 실습 복습및과제
8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	1. 5가지 부모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동안 배웠던 회기 내용을 확인한다. 2. 자녀의 보호와 양육은 어머니 전담이 아니라 부모의 동등한 참여와 책임을 요구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3. 이에 따라 부모 공동 양육의 효과적 방법을 알아본다. 4. 부모교육의 마지막 회기로써 민주적인 부모 역할에 대해 다짐하는 시간을 갖으며, 프로그램 평가를 하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co-parenting에 대한 이해 다섯가지 부모의 역할 정리	도입 강의및토론 활동 자유토론

〈표 2〉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실험집단		통제집단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아동의 성별		아동의 성별	
남	5(33.3)	남	8(53.3)
여	10(66.7)	여	7(46.7)
출생순위		출생순위	
첫째	12(80)	외동이	4(26.6)
둘째	3(20)	첫째	4(26.6)
		둘째	7(46.8)
가족구조		가족구조	
핵가족	14(93.3)	핵가족	11(73.3)
대가족	1(6.7)	대가족	4(26.6)
보육시설경험		보육시설경험	
보육기관	9(60)	보육기관	7(46.7)
학습이나 놀이관련기관	6(40)	학습이나 놀이관련기관	5(33.3)
		무응답	3(20.0)
주양육자		주양육자	
어머니	15(100)	어머니	13(86.6)
		조부모	1(6.7)
		친인척	1(6.7)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	
35세 미만	4(26.6)	35세 미만	2(13.4)
35-39세	7(46.7)	35-39세	10(66.7)
40-44세	3(20)	40-44세	1(6.7)
45세 이상	1(6.7)	45세 이상	2(13.3)
아버지의 연령		아버지의 연령	
40세 미만	5(33.4)	40세 미만	5(33.3)
40-44세	6(40.0)	40-44세	7(46.6)
45세 이상	4(26.6)	45세 이상	3(20.1)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2(13.3)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2(13.3)
대학교 중퇴 또는 전문대(2년) 졸업	2(13.3)	대학교 중퇴 또는 전문대(2년) 졸업	1(6.7)
대학교 졸업	10(66.7)	대학교 졸업	10(66.7)
대학원 이상	1(6.7)	대학원 이상	2(13.3)
아버지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4(26.7)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2(13.3)
대학교 졸업	10(66.7)	대학교 졸업	11(73.3)
대학원 이상	1(6.7)	대학원 이상	1(6.7)
어머니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무직, 가정주부	14(93.3)	무직, 가정주부	10(66.7)
전문직	1(6.7)	생산감독 및 서비스직종사자	2(13.3)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종사자	1(6.7)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1(6.7)
		전문직	2(13.3)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직업	
생산감독 및 서비스직종사자	1(6.7)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종사자	4(26.7)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종사자	6(40.0)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3(20.0)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4(26.7)	전문직	3(20.0)
전문직	1(6.7)	기업주, 정부고위관리공무원	5(33.3)
기업주, 정부고위관리공무원	1(6.7)		
기타	2(13.3)		
월수입		월수입	
300만원 이하	6(40.0)	300만원 이하	3(20.0)
301-400만원	4(20.0)	301-400만원	3(20.0)
401-500만원	2(13.3)	401-500만원	4(26.6)
501-600만원	1(6.7)	501-600만원	1(6.7)
600만원 이상	2(13.4)	600만원 이상	4(26.7)

프로그램의 회기별 제목, 교육목표 및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매 회기는 도입(5-10분)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부가한 과제를 확인하고 이번시간 진행될 내용의 간단한 소개가 이루어지며, 자체 제작한 교재를 통한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식의 전달하는 시간을 40-50분정도로 구성하고, 10분 휴식 후 후반 부 50분 동안에는 자체 제작한 워크북을 통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적용과 토론으로 구성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서울 강북에 위치한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어머니 30명이었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실험집단은 여아가 남아보다 많았으며(남아 = 5명, 여아 = 10명), 주 양육자는 전부 어머니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자영업이 가장 많았고(6명),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14명)가 가장 많았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남아 8명, 여아 7명이었고 주 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11명과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기업주·고위 공무원(5명), 자영업(4명)의 순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10명)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질문지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지식을 측정하는 총 1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질문지는 아동학 전공 교수 5명과 부모교육전문가 3명으로부터 질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질문지의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3>과 같다.

1)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는 박성연과 이숙(1990), 이미정(1998)의 연구를 토대로 한 임희수(2001)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3문항으로 각 하위요인으로는 합리적 지도(8문항), 애정(9문항), 과보호(9문항), 일관성 있는 규제(3문항), 지시/통제(6문항), 거부/적대(7문항)의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어머니가 평소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지에 관한 내용으로, '나는 아이에게 칭찬

<표 3> 각 척도별 문항수 및 신뢰도

척도	문항수	Cronbach's α
양육행동		
합리적 지도	8	.63
애정	9	.87
과보호	9	.60
일관성 있는 규제	3	.74
지시/통제	6	.71
거부/적대	7	.81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고통요인	12	.89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12	.89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12	.80
양육효능감		
부모효능감	8	.80
부모로서의 불안감	9	.68
양육지식		
학령기 아동과 부모	3	.85
학령기 발달특성에 맞는 자녀양육	4	.94
부모-자녀의 상호존중적 대화	3	.86
민주적인 갈등해결 방법	4	.86
기본생활지도	4	.96
도래관계지도	6	.93
학습지도	4	.83

을 잘해준다', '나는 아이를 껴안아 주고 다독여려 준다', '나는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는데 까지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쓴다' 등 어머니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자녀에게 해주는 행동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평가하는 4점 Likert식 척도로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 영역별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b)의 부모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각 하위요인으로는 부모의 고통요인(12문항),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아이를 가진 이후로 새롭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었다', '우리 아이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들을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 등 학령기 자녀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4점 Likert식 척도로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어머니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PSOC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이하, 부모효능감)(8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불안(이하, 부모로서의 불안감)(9문항) 등 두 가지 요인,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 역할은 할 만 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나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것에 대한 내 개인적인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부모로서의 불안감은 부정적인 양육효능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라는 역할 때문에 나는 긴장되고 불안하다', '때때로 나는 어떤 것도 해낸 것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 등의 문항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4점 Likert식 척도로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4) 어머니 양육지식

양육지식요인은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내용에 관한 것으로 1회기부터 7회기까지의 내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과 부모(3문항), 학령기 발달 특성에 맞는 자녀양육(4문항), 부모-자녀의 상호존중적 대화(3문항), 민주적인 갈등 해결 방법(4문항), 기본생활지도(4문항), 또래관계지도(6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전혀 모른다(1점)', '잘 모른다(2점)', '약간 안다(3점)', '매우 잘 안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1) 조사절차

(1) 프로그램의 실시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부모를 선정하기 위해 2007년 9월에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동의를 얻어 15명의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고, 실험집단과 동일한 지역, 유사한 연령 및 교육수준과 직업을 갖은 15명의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에 속하는 15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2007년 10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 1회씩 8주, 총 8회기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매 회기는 120분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앞서

제시한 <표 1>과 같고 그 내용은 아동학 관련 전문가 6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 사전·사후검사

실험집단의 사전검사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전 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하였고, 사후검사는 8회기의 부모교육이 끝난 후 동일한 질문지에 다시 응답하게 하였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이 사전검사를 받는 주에 질문지를 배포하여 사전검사 질문지를 회수하였고, 사후검사는 실험집단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종료하는 시점에 사후검사 질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한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자료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SPSS/WIN 15.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척도의 문항과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그리고 양육지식 점수에 대하여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사전점수에 대한 차이분석을 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실험-통제집단 간 사전점수 차이분석은 사후검사를 비교하는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의 표집에 있어서 완벽한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사전검사를 통해 종속변인들의 점수차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지식에 대한 사전 검사 점수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갈등해결방법 요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인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집단 별 부모의 양육행동이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 분석결과에는 <표 5>과

〈표 4〉 실험-통제집단 간 사전점수 차이 분석

(N = 30)

변인	하위요인	집단	M	SD	t
부모의 양육행동	합리적지도	실험집단	3.16	.38	-0.29
		통제집단	3.13	.25	
	애정	실험집단	2.93	.45	1.03
		통제집단	3.10	.38	
	과보호	실험집단	2.21	.35	2.04
		통제집단	2.44	.47	
	일관성 있는 규제	실험집단	2.76	.43	1.29
통제집단		2.96	.55		
지시/통제	실험집단	2.81	.37	-0.85	
	통제집단	2.68	.36		
거부/적대	실험집단	2.24	.47	-2.18	
	통제집단	2.20	.35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실험집단	2.23	.59	-1.90
		통제집단	1.91	.40	
	역기능적 상호작용	실험집단	1.73	.39	-0.67
통제집단		1.63	.36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실험집단	2.34	.37	-2.14
		통제집단	1.96	.46	
양육 효능감	부모효능감	실험집단	2.77	.34	1.45
		통제집단	2.94	.29	
	부모불안	실험집단	2.18	.47	-2.60
		통제집단	1.89	.32	
양육 지식	학령기아동에 대하여해	실험집단	3.02	.65	1.04
		통제집단	3.20	.33	
	학령기발달특성	실험집단	2.63	.52	1.20
		통제집단	2.85	.60	
	대화방법	실험집단	2.96	.42	1.87
		통제집단	3.22	.35	
	갈등해결방법	실험집단	2.68	.50	3.36*
통제집단		3.13	.25		
	기본생활지도	실험집단	2.40	.46	2.95
		통제집단	2.92	.46	
	포래관계지도	실험집단	2.63	.43	2.50
		통제집단	3.00	.36	
	학습지도	실험집단	2.33	.51	3.27
		통제집단	2.95	.47	

*p < .05.

같다. 실험집단에서는 애정, 일관성 있는 규제, 지시/통제, 거부/적대의 행동이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합리적지도, 과보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부모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후 긍정적인 양육행동인 애정, 일관성 있는 규제가 증가하였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인 지시/통제, 거부/적대의 양육행동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제집단의 경우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집단 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표 6), 실험집단의 경우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요인이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모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에서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후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 의한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집단 별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부모효능감 요인이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후 부모 효능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제집단의 경우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집단 별 양육행동변인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

(N = 30)

변인	하위요인	집단	시기	M	SD	t
부모의 양육행동	합리적지도	실험집단	사전	3.16	.38	.52
			사후	3.13	.27	
	통제집단	사전	3.13	.25	.18	
		사후	3.12	.29		
	애정	실험집단	사전	2.93	.45	-2.90*
			사후	3.09	.45	
	통제집단	사전	3.10	.37	-.38	
		사후	3.13	.25		
	과보호	실험집단	사전	2.21	.35	.00
			사후	2.21	.35	
	통제집단	사전	2.44	.47	.68	
		사후	2.39	.40		
일관성 있는 규제	실험집단	사전	2.76	.43	-2.20*	
		사후	2.98	.53		
통제집단	사전	2.96	.55	1.38		
	사후	2.82	.45			
지시/통제	실험집단	사전	2.81	.37	3.51**	
		사후	2.54	.40		
통제집단	사전	2.68	.36	1.36		
	사후	2.56	.29			
거부/적대	실험집단	사전	2.24	.47	2.05*	
		사후	2.06	.50		
통제집단	사전	2.20	.35	.32		
	사후	2.17	.41			

* $p < .05$. ** $p < .01$.

〈표 6〉 집단 별 양육스트레스변인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

(N = 30)

변인	하위요인	집단	시기	M	SD	t
양육 스트레스	부모고통	실험집단	사전	2.23	.59	1.15
			사후	2.14	.51	
	통제집단	사전	1.91	.40	-2.15	
		사후	2.05	.43		
	역기능적 상호작용	실험집단	사전	1.73	.39	.62
			사후	1.66	.48	
통제집단	사전	1.63	.36	-.22		
	사후	1.65	.28			
까다로운 기질	실험집단	사전	2.34	.37	3.64**	
		사후	2.11	.48		
통제집단	사전	1.96	.46	-.62		
	사후	2.03	.29			

* $p < .05$. ** $p < .01$.

〈표 7〉 집단 별 양육효능감 변인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

(N = 30)

변인	하위요인	집단	시기	M	SD	t
양육 효능감	부모효능감	실험집단	사전	2.77	.34	-1.84*
			사후	2.92	.37	
	통제집단	사전	2.94	.29	1.04	
		사후	2.86	.17		
	부모불안감	실험집단	사전	2.18	.47	.84
			사후	2.23	.37	
통제집단	사전	1.89	.32	-1.50		
	사후	1.97	.35			

* $p < .05$.

〈표 8〉 집단 별 양육지식 변인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

(N = 30)

변인	하위요인	집단	시기	M	SD	t	
양육 지식	학령기 아동에 대한 이해	실험집단	사전	3.02	.65	-2.54*	
		통제집단	사후	3.40	.47		
			실험집단	사전	3.20	.33	-1.00
			통제집단	사후	3.32	.46	
	학령기 발달특성	실험집단	사전	2.63	.52	-7.74***	
		통제집단	사후	3.40	.49		
			실험집단	사전	2.85	.60	-1.98
			통제집단	사후	3.05	.45	
	대화방법	실험집단	사전	2.96	.42	-4.26***	
		통제집단	사후	3.49	.45		
			실험집단	사전	3.22	.35	-1.15
			통제집단	사후	3.29	.40	
	갈등해결방법	실험집단	사전	2.68	.50	-6.81***	
		통제집단	사후	3.42	.42		
			실험집단	사전	3.13	.25	.95
			통제집단	사후	3.03	.43	
기본생활지도	실험집단	사전	2.40	.46	-6.28***		
	통제집단	사후	3.37	.56			
		실험집단	사전	2.92	.50	.38	
		통제집단	사후	2.88	.51		
포래관계지도	실험집단	사전	2.63	.43	-6.66***		
	통제집단	사후	3.37	.45			
		실험집단	사전	3.00	.36	-.40	
		통제집단	사후	3.03	.44		
학습지도	실험집단	사전	2.33	.51	-8.10***		
	통제집단	사후	3.47	.52			
		실험집단	사전	2.95	.47	.88	
		통제집단	사후	2.85	.52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집단 별 부모의 양육지식이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에서 모든 하위요인이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8). 즉, 부모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후에 부모의 양육지식에서 학령기 아동에 대한 이해, 학령기 발달특성, 대화방법, 갈등해결방법, 기본생활지도, 포래관계지도, 학습지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령기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한 검증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자녀를 둔 15명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실험집단과 15명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통제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실험집단 어머니들에게 8주 동안 1주에 120분씩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8회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

식이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집단 간 동질성 분석을 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를 비교분석 하였는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과의 집단 별 비교를 paired-t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지식에서의 향상에 대한 분석결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행동에서 애정, 일관성 있는 규제가 증가하였고 지시/통제와 거부/적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효능감에서 부모효능감 요인은 부모교육을 받은 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식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집단이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학령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에게 자녀를 애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었

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고(강명희, 2002; 공병진, 1992; 예서현, 2004),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감소시킨다는(김성자, 2002; 박현미, 2003; 윤미정, 1998)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았는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녀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등 부모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전환되는 시점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기 아동들에 대한 지식이나 적절한 양육기술과 방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양육지식의 전 영역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이해, 학령기 아동의 발달특성, 대화방법, 갈등해결방법, 기본생활지도, 또래관계지도, 학습지도에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양육지식의 제공은 자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선행연구들과(Siegler, 1986; Stevenson-Hinde, 1998; Trommsdorff & Kornadt, 2003) 일치한다. 부모관련 변인 중 특히 양육지식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못한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자녀가 학령기 이전시기였던 유아기 때 부모역할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자녀가 학령기로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양육지식이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지식이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즉, 부모들은 유아기 시기와는 다른 학령기 아동의 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에는 없었던 자녀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학교는 유치원과 달리 정해진 규율 안에서 행동해야 하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구조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로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학령기는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가 확대되고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박성연, 2006) 또래관계에 대한 지도가 매우 중요해지고,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교에서의 성적이 곧 성인이 되어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도현심 외, 2005) 학습지도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매우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는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경험

했던 집단의 어머니들과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 간에 양육지식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 이유로 설명될 수 있으며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양육지식 내용이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얻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특성상 다수의 인원을 두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의 제한을 두고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지역적으로 서울 강북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과 인적자원을 좀 더 확충한 후 다양한 그룹을 운영한다면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좀 더 바람직한 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8회기라는 단기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본 프로그램 8회기에 부부공동양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오늘날 맞벌이 가정의 빠른 증가와 현대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각 발달단계별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드문 실정에서 우리나라 현실을 적절하게 가미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실제로 검증하여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영유아부모, 청소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과는 다르게 학령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요구도를 직접 조사해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고, 그에 따라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다른 발달단계와 차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적인 보급을 가능하게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강명희(2002). 가정통신문을 통한 PET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학위 청구논문.
- 공병진(1992). 부모효율성 훈련(PET)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자(2003). 유치원에서의 부모교육을 통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옥, 구향숙(2007). 초등학교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113-125.
- 김정원, 이기숙(1999).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183-197.
- 김진영, 김정원, 전선옥(2006). **유아·부모·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파주: 창지사.
- 도현심, 이희선, 김상희, 최미경, 이사라(2005). **인간발달과 가족**. 파주: 교문사.
- 민보경, 김성원(2008). 과학영재아 부모들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8(8), 823-831.
- 박성연(2006). **아동발달**. 파주: 교문사.
- 박성연, 김상희, 김지신, 박응임, 전춘애, 임희수(2006). **부모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박현미(2003). 웹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예서현(2004). 의사소통 훈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영효(2001). 부모교육의 방향. **유아교육**, 10(1), 97-108.
- 윤미정(1998). 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영, 배소연(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아동학회지**, 21(2), 17-31.
- 이재연, 김경희(1992).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임희수(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숙(1998). 대상에 따른 부모교육 변별화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4, 27-52.
- 최미경, 신정희, 구현경, 박선영, 한현아, 최단비(2008).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지식수준 및 요구도. **아동학회지**, 29(5), 227-242.
- Abidin, R. R.(1990a).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1990b).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No.1, Pt.2).
- Brim, O.(1965). *Education for child rearing*. NY: Russell Sage Foundation.
- Croake, J. W., & Glover, K. E.(1977). A history and evaluation of parent education. *Family Coordinator*, 26(2), 151-158.
- Dempsey, L., & Dunst, C. J.(2004). Helping styles and parent empowerment in families with a young child with a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29(10), 40-51.
- Desjardin, J. L.(2003). Assessing parental perceptions of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Volta Review*, 103(4), 391-409.
- Luster, Y., & Kein, E. L.(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Mahoney, G., & Bella, J.(1998).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family-centered early intervention on child and family outcome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8, 83-94.
- Mahoney, G., Kaiser, A., Girolametto, L., MacDonald, J., Robinson, C., Safford, P., et al.(1999). Parent education in early intervention: A call for a renewed focu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 131-140.
-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imon, P., & Clark, L.(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parenting in inner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47-461.
- Scheel, M. J., & Rieckmann, T.(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5-27.
- Siegler, R. S.(1986). *Children's thinking*(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tevenson-Hinde, J.(1998). Parenting in different

cultures: Time to focu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98-700.

Tapscott, D.(1998). *Growing up digital: Net generation*. New York: McGraw-Hill.

Teti, D.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Trommsdorff, G., & Kornadt, H. J.(2003). Parent-child relation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In L.

Kuczynski(Ed.),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pp.271-306). London: Sage.

Whipple, E. E., & Webster-Stratton, C.(1991).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Child Abuse & Neglect*, 15, 279-291.

접 수 일 : 2009년 7월 9일

심사시작일 : 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9월 17일